



2026. 7. 6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증시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네요”...결국 은행으로 다시 돈 몰린다

매일경제

<https://zrr.kr/Eoec60>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총수신이 90조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48조1382억원)의 1.9배 수준
증시에서의 차이 실현이 은행으로 'کم백'한 데다 금리 상승이 가시화하면서 다시 은행을 찾는 것으로 파악

KB금융 차기 회장 숫리스트 6명 확정...양중희·이재근·이환주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SkiWbn>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추위를 열고 내부 후보 4명과 외부 후보 2명 등 총 6명을 차기 회장 후보 숫리스트로 확정
회추위가 추천한 최종 회장 후보는 관계 법령상 자격 검증과 이사회 추천 절차를 거친 뒤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정식 취임 및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

'여력 있지만 풍선효과 경계'...주담대 금리 올리는 지방은행

아시아경제

<https://zrr.kr/6s5JqO>

5대 시중은행과 인뱅 3사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지방은행들도 주담대 우대금리 중단과 금리 인상으로 풍선효과 차단에 나서는 모습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오른 데다, 시중은행과 인뱅의 대출 관리 강화로 주담대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

인뱅 신용대출 평균금리 내렸지만...저신용자는 8% 육박

SBS Biz

<https://zrr.kr/Lqj2p4>

인뱅 3사의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가운데 평균 금리가 내려갔지만 저신용자 금리는 상승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의 평균금리는 7.89%로 전월보다 0.29%p 오르며, 같은 조건에서 5대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7.86%로 전월대비 0.14%p 하락한 것과는 반대 추세

미래에셋, 1조3천억 자금조달 추진...'큰 손' 된 SK하이닉스

연합뉴스

<https://zrr.kr/r8rY2t>

미래에셋증권이 1조원이 넘는 자금조달을 추진 중으로, 발행될 CP의 만기는 2년 이상이며 일부는 2029년 하반기에나 만기가 도래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SK하이닉스에서 CP 전량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하루 평균 62조' 빚투 뛰어난 개미들 덕분에...증권사 이자수익 1.4조 육박

매일경제

<https://zrr.kr/vnGmYI>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한 2분기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 투자)' 규모가 하루 평균 6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증권사들이 신용용자와 주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도 1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

국지성 폭우에 커지는 후보험 부담... 보험업계 총력 대응

한국보험신문

<https://zrr.kr/Ptknmh>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예고되면서,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방어와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체제 강화에 나서는 모습
보험업계는 재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침수 관련 보험 분쟁을 줄일 계획

안 팔리던 보험사에 다시 줄 섰다...보험 M&A 살아난 이유

마이데일리

<https://zrr.kr/WvoFGa>

롯데손보, KDB생명, 예별손보 등 보험사들이 다시 M&A 시장의 중심에 서는 모습
과거 번번이 유찰됐던 보험사들이 다시 인기 매물로 떠오른 배경에는 몸값 하락과 인수 부담 완화, 보험시장 저성장이 맞물렸다는 분석

활용 범위 커지는 '주식 토큰'...선물 시장 담보로 쓴다

뉴스1

<https://zrr.kr/1lnZCT>

크라켄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스트래티지 등 일부 주식 토큰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물 거래 담보로 지원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담보로 활용 가능

법인·스테이블코인·내부통제...제도권 문턱 앞에 선 거래소

이투데이

<https://zrr.kr/tAKj2C>

국내 하반기 거래소 경쟁은 거래량 순위보다 제도권 거래소로서의 자격 기준을 누가 먼저 충족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
다만,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논의는 시장에 대한 관심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